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모두를 위한 원탁

에서 모든 육류와 유제품을 먹지 않으면서 동물의 알 등은 먹는 '오보'(Ovo), 여기에 채소는 기본으로 육류만 빼고 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까지 다 먹는 '페스코'(Pesco), 동물의 알은 먹지 않고 유제품과 꿀 등 동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는 '락토'(Lacto)가 있다. 또한 채식을 주로 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끔 육식을 하기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유연한 채식주의자가 존재한다.

이런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10년이 지나자 150만 명이 되었고 작년에는 약 250만 명으로 지난 4년간 더욱 급속하게 늘었다. 채식주의는 인구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다.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채식 문화의 확산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전 보다 눈에 자주 띄는 비건 식품과 제품군 그리고 늘어나는 전문 식당을 보며 체감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급식과 관련해 '채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과 '채식 선택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지역도 늘어 가는 추세이다. 채식주의자는 음식을 가려먹는 소수자로 극단적이며 예민하고 별스러운 사람들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건강, 동물권 보호, 환경 등의 가치를 우선한 사람들이란 인식이 커졌다. 그야말로 비건 문화는 현 시대 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 현상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와 비채식이 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기란 현실에선 아직 쉽지 않은 않은 듯 하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채식주의에 관한 연구('음식문화 소수자로서 채식주의자의 식사 경험에 대

한 통합적 문헌 고찰: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 간호학과 김상희 교수팀) 내용에 따르면 채식주의가 채식 하려면 어려운 점으로는 비채식인과의 관계인 것으로 짚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비채식인인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비채식인이 채식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까다로운 채식인 때문에 비채식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한 식탁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가는 식당에 채식인을 위한 메뉴가 없으며 채식 주문을 부탁하면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국내 대다수의 식당에서는 채식에 대한 이해나 존중을 반영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비건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까다로운 소수자가 아니고, 난비건(non-Vegan)이 무식하거나 동물권을 무시하고 환경에 무책임한 사람들도 아니다. 비건과 난비건,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거리낌없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해지기 위해서 채식주의와 비채식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채식주의와 비채식인이 공통으로 식사를 하는 곳이 많을수록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나와 다르므로 남을 차별하는 일이 드문 세상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상에서의 먹는 문제라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모두를 위한 편안한 밥상을 갖는 것이라 그야말로 공존을 지향하고 모색하는 원탁의 사회를 갖는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관방천 징검다리에서

옛날 투박한 돌도 불규칙한 간격도 아니지만 징검다리만으로 그리운 옛날의 것들이 되살아난다.

그때는 어느 마을에나 냇가가 있었고, 보 아래로 여울이 흘렀다. 그 여울에는 그 마을 앞 당산나무처럼 오래된 징검다리가 있었다.

소나기만 내려도 우린 그 징검다리를 떠올리며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이 마중을 나와 우리를 업어서 건너 주곤 했는데, 비에 젖은 아저씨의 등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비가 그치면 징검다리가 넓은 머리를 쏙 내밀었다. 그때부터 스스로 건너야 했는데, 이끼가 끼어서 제법 미끄러웠다. 두려움의 대상이자 용기를 시험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만물을 부리면 안 된다는 따듯한 교훈도 얻는 곳이다.

징검다리를 능숙하게 건넌 만큼 자란 후, 징검다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곳에서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는 일이 참 좋았다. 돌 사이는 유속이 빨라서 물고기들이 많았다. 피라미 버들치 납자루 등 많은 물고기가 모였다. 메기나 자라도 돌 틈 사이에서 보이곤 했다. 그러면 그 징검다리에 배를 깔고 얼굴을 물속에 넣고 눈을 뜬 채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으로 침방거려 보기도 했었다.

그런 징검다리가 하천을 넓히고 정비하는 사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유년의 유산 하나가 모두 없어진 것이다. 징검다리가 사라진 것은 교각이 대신할 수 없는 수많은 삶과 이야기들을 소실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

게 발동기가 사라지고 물레방앗간이 사라졌다. 사라진 초가와 담구지와 함께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까지 뺏혀 나갔다.

그리운 징검다리, 여동생은 책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건넜다. 건너마을 노총각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숙희 누나는 울면서 건넜다. 누구는 공장으로 누구는 진학을 위해 하나둘 떠났다.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를 업고 허겁지겁 읍내 병원으로 달려갈 때도 이곳을 지나섰고, 명절날이면 커다란 보침을 이고 지고 누나와 형들도 이곳을 통해 돌아왔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상여꾼들이 한 줄로 서서 상여를 메고 건너 곳도 이곳이었고, 한번 건너면 땅자는 이 길을 되돌아오지 못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흘러넘친 곳도 이곳이었다. 그 징검다리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오를 때는 또 얼마나 아름답던가.

아침 안개 자욱한 냇가에서 삶을 시작하였고 잠마침 빠른 유속처럼 사춘기의 방향도 흩날릴처럼 흘러갔지만, 가을날 맑은 수면이 깊은 산을 그대로 담듯 세상도 삶도 어느 정도 관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징검다리 덕분이였다. 이제 저물녘 깊어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비운 마음의 배를 물결에 띄워 본다. 그때 그 징검다리는 아니지만, 관방천 징검다리는 그때 그 정취를 불러일으켜서 좋다.

그 물결이 내 가슴에 흐르고 나도 무사히 피안에 이를 수 있도록 가슴에 심표처럼 징검다리를 하나둘 놓아 본다.

기고



윤희철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에너지의 날'에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 건물의 빛 반사가 있어 도시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빛 반사는 없다. 빛 반사가 있었다면 인천공항 2층사를 지을 때 지붕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자파가 심해 건강을 해진다고 하지만, 태양광 패널에는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때 설치하는 인버터에서 일부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나오는 수준도 LCD 텔레비전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 건강이 걱정된다면 생활 환경에서 멀리 떨어뜨려 설치하면 된다. 중금속 문제도 말한다. 20년 전 초창기 태양광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못하던 시기에 나타난 문제다. 지금은 개선되어 원래도 '모래'를 주성분으로 한다.

물론 산비탈에 세워 경관을 망치고,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도시 지역인 광주의 탄소 중립을 말하고 있다. 당연히 도시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이다. 도시의 에너지원을 바꾸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탄소 중립의 중심으로 재생 에너지를 고려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기조를 바꿔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을 27%에서 30%로 증가하도록 했다.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당장 계획 중인 신한울 3·4호기 역시 2030년까지 건설 완료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말하는 원전 비중 확대는 그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반면에 세계는 지금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

조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그동안 이야기했던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이다"라고 주장한다.

재생 에너지에 집중적인 노력과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광주가 몇 년 전 아삼차에 수립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2045년에 달성하겠다는 광주의 그림은 그저 상상 속 이야기에 그칠 뿐이다.

오늘(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이날은 국가 기념일이 아니다. 2003년 8월 22일 최대 전력 소비(4598만kW)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지정된 날이다.

에너지원을 바꾸지 않으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말하는 것은 헛된 구호에 그친다. 당장 정부나 기업에도 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광주라는 도시에 사는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 태양광, 배관타 태양광, 도시형 풍력, 지열 난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욱 가열차게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몇몇에게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노력을 말하려면 우리 세대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끝내야 한다. 현재의 기후 위기 극복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전환이 새롭게 시작되는 '에너지의 날'이 되길 기대한다.

社說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축소 안 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특화 지구) 육성에 관한 정부 방침이 한 달여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두 곳이 지정 대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을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전이 추가될 경우 고흥은 자칫 연구·인재 개발 분야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잇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7일 제42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발사체와 위성 특화 지구별로 한 개씩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

한 사천을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최종 선정의 원칙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남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인재 개발 클러스터가 추가 지정될 경우,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의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구 개발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6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에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시험·평가·발사는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이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체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고흥의 연구·인재 개발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 시름겨운데 원산지까지 속여서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로 시름겨운 서민들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거짓 표시 243건, 미표시 153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396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7일까지 거짓 표시 137건, 미표시 107건 등 266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증가세다. 지역 특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비롯해 통신판매 업체, 수입 농산물 유통 업체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임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이다.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서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

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9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와 제조·가공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별·제수 유통업체 시·군·구·시·군에 대한 단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사법 경찰관 등 36명의 직원과 농산물 명에 감시원 331명을 투입한다. 영세 상인도 살펴피도 물량을 대량 거래하는 통신판매 업체와 농축산물 도소매 업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구별법을 숙지해 혹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김훈의 장편소설 '하얼빈'이 장안의 화제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발간된 소설은 에스24 종합 베스트셀러에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특유의 단문으로 인간 안중근의 고뇌를 그린 작품은 묵직한 울림을 준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을 소설로 '하얼빈'을 추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작가는 하얼빈역을 향해 마주 달려가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여정을 대비시키면서 단지 권총 한 자루와 백 루블의 여

'하얼빈'
김훈은 '하얼빈'의 후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정신을 부각시켰다"고 호평했다.

김훈의 소설 가운데 '하얼빈'과 함께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칼의 노래'다. 임진왜란 당시 '난중일기'를 모티브로 이순신의 고뇌를 그린 소설은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세계 문화 총서'로 번역될 만큼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한편으로 소설에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백성의 안위보다 중요 사직에 집착하는 조선의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냉소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침략국인 일본과 연계된 역사 소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혹여 독자들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약소국의 민초들이다. '칼의 노래'와 '하얼빈'에는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피눈물나는 고통과 슬픔이 절절히 묘사돼 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어쩌면 쉽게 잊어버린 억압과 수탈의 역사에 대한 경고일지 모르나.

김훈은 '하얼빈'의 후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정신을 부각시켰다"고 호평했다.

김훈의 소설 가운데 '하얼빈'과 함께 언급되는 작품이 바로 '칼의 노래'다. 임진왜란 당시 '난중일기'를 모티브로 이순신의 고뇌를 그린 소설은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세계 문화 총서'로 번역될 만큼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한편으로 소설에는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백성의 안위보다 중요 사직에 집착하는 조선의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냉소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